

北 민생인프라 기초자료 품질 향상 위한 EU 협의 결과

(‘14.6.24, 기획재정부 남북경제과.통계청 통계정책과)

- **[출장 개요]** 北 민생인프라 국제공동연구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북한 기초자료 품질 향상을 위해 EU 기관* 방문 및 협력 모색
 - * EU 국제개발원조청(6.23, 09:30), EU 정책연구센터(6.23, 16:00), EU 통계청(6.24, 09:30)

- **[EU 국제개발원조청]** 우리측은 EUAID가 농업, 식량 등 대북 인도적 지원 과정에서 축적한 기초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민생인프라 DB 구축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
 - * EU 국제개발원조청은 FAO 등 국제기구 및 역내 NGO를 통해 대북 제재와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지속
 - EUAID측은 그간 DB 작업을 시행한 경험은 없으나, 이러한 DB가 EU측의 북한 민생인프라 실태 파악 및 사업 효과성 분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계속 협의하기를 희망
 - * EUAID측은 여타 개발협력 부서 및 대외관계청 등과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협력 방안 도출을 위해 하반기중 화상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

- **[EU 정책연구센터]** 우리측은 CEPS*가 EUAID.대북사업 수행 EU NGO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동 DB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**를 수집.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제안
 - * CEPS측은 주벨기에대사관과 함께 ‘EU NGO의 대북지원 성과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’ 정책연구용역 시행중(2만불, ‘14.6~12월)
 - ** 우리측이 직접 접촉하는 것보다 자료 확보에 상대적 용이
 - CEPS측은 북한 민생인프라 기초자료와 관련한 협력이 추진중인 연구용역의 성과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 언급

- **[EU 통계청]** 우리측은 EU통계청이 과거 체제전환국 통계협력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 공유 및 향후 남북관계 개선시 대북 적용 가능성 모색과 EU가 보유한 북한 기초 자료의 DB화 협력 요청
 - EUROSTAT측은 알바니아 사례 등 경험 공유에 적극 관심을 표명하였으며, 개도국 통계역량 진단 프로그램인 ‘Snapshot Tool’과 한-EU 공동연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
 - * EU 통계청은 Snapshot Program을 통해 모잠비크, 라오스, 에콰도르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11일 과정의 통계 시스템 진단컨설팅 운영중 (컨설팅은 EU 소재 민간 통계전문 기관인 아르테미스가 수행)

- 또한, EU가 추천하는 EU 통계연구기관과 **북한 민생인프라 기초자료의 DB화 협력** 추진 함의
- **[관찰 및 평가]** EU 역시 북한 기초자료의 낮은 신뢰성, 불투명성에 대해 **우리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**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
 - EUAID는 **북한 기초자료의 DB화에 관심**을 표명하면서도 EU내 다원화된 의사결정 구조 및 대북 업무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**긴 호흡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을 희망**
 - 기술적 의제를 논의하는 EUROSTAT은 **협력에 보다 적극적**이나, 본격적인 대북 협력을 위해서는 **EU 본부의 승인 필요** 언급
 - 이를 고려하여 북한 통계 EU DB 구축은 EU의 참여가 가시화될 때까지 **민간 주도의 3자 연구프로젝트***를 통해 우회 추진
 - * 한국 북한통계 연구기관(KDI, 통계진흥원 등), EU 통계 연구기관 (EUROSTAT 추천 기관), EU의 북한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기관(CEPS)
 - 북한 통계 추계와 관련한 **기술적 의제**에 대해서는 향후 **비공개 한-EU 세미나 개최**를 통해 협력을 조기에 가시화

◇ **북한경제 기초통계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방안 (초안)**

- (일시/장소) '15년 상반기 / 서울 (비공개)
- (참여) 기재부.통계청.EU 통계청(공동주관), 한-EU 유관 연구기관, 통일부.외교부.국정원 등 유관 기관
- (논의 주제) EU 통계청의 경험 공유 및 북한 적용 가능성 모색
 - * 개도국 통계 진단 및 개선 모듈화 경험 소개 및 북한 적용 방안(EU통계청), 체제전환국 컨설팅 사례 및 시사점(아르테미스), 북한통계 발전 과제(통계청)

- **[향후 계획]** 한-EUAID, EUROSTAT 간 화상회의 개최를 통해 **EU 자료의 활용 가능성 및 EU 기여방안** 추가 논의 (3/4분기)
 - * EU 통계협력 기관 확정 및 3자 연구프로젝트 추진 방안 포함
 - KDI 주관으로 하반기부터 추진예정인 「**북한경제 기초통계 국제DB 구축사업**」의 파트너로 **EUAID 또는 EU 통계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 조치** (4/4분기)
 - 기재부.통계청.EU 통계청이 공동주관하는 **비공식 국제 세미나 개최** 준비 ('15년 상반기)

1. EU 국제개발원조청(EUAID)

- (일시/장소) 6.23(월) 10:00~11:30 / 브뤼셀 EU 국제개발원조청 본부
 - (면담자) Jose Javier Godina Catalan(개발총국 한국 담당관), Christophe Ingels(개발총국 Head of Sector Twinning-TAIX-SIGMA) 외 예산 담당관 1인
 - * (우리측) 나원창 기재부 남북경제과장, 김경록 남북경제과 사무관, 박진혜 통계청 통계정책과 사무관, 고광희 주벨기에대사관 서기관
- 우리측은 그간 EUAID측이 농업, 식량 등 대북 인도적 지원 과정에서 축적한 기초 자료의 공유 및 북한 민생인프라 DB 구축에 대한 협력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
- 우리측은 대통령님의 드레스덴 통일구상 일환인 북한 민생인프라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대북경제정책 수립의 중요한 선결 조건인 점을 감안하여,
 - 그간 북한 민생인프라에 대한 보다 정교한 추계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, 북한 촌락 등 세부 지역 단위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로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,
 - 지속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북한 민생인프라에 대해 풍부한 기초자료와 경험을 보유한 EU가 동 연구에 협력 파트너로 참여한다면,
 - 동 추계의 정확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EU측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며 EU측 의향을 문의함
- EUAID측은 장기간 대북 지원사업을 해왔으나, 개별 사업 결과들을 조합하여 북한 민생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하며,
- DB화 작업은 대북 지원사업 성과 등에 대한 소위 ‘큰 그림’을 파악하는데 있어 EU측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함

- 다만, EUAID의 업무 추진 체계상 EUAID가 직접 주관하는 ODA프로그램 외에 개별 회원국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경우는 EU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,
 - EUAID 주관 ODA 사업 결과들도 제대로 계량화되어 있지 않아, 기초자료 DB화를 위해서는 향후 여러 기술적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함
- 우리측은 민생인프라 기초자료 연구는 우선 EUAID측이 보유한 자료를 대상으로 시작하고,
- 중장기적으로 각 EU 회원국들이 현재 공유하지 않고 있는 자료들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며,
 - EUAID측 기초자료들의 DB 작업은 양측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한-EU 통계전문연구기관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EU NGO 등과 호흡을 맞추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
- 우리측은 북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는 EU 기구 및 NGO 등을 개별 접촉할 수도 있겠으나,
- EU에서 ODA를 총괄.조정하는 EUAID가 협력 주체가 될 수 있다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 작업이 가능할 것이라 강조함
- EUAID측은 한국측 제안에 대해 개발협력총국, 인도지원총국, 대외관계청(북한 이슈의 민감성 고려) 등과 두루 협의하겠으며, 향후 화상회의 등을 통해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을 제안함
- 이와 별도로 EUAID측은 대북 Capacity Building 이슈와 관련하여 불가리아, 알바니아 등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만큼,
- 한국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 설명함
- 우리측은 여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개별 EU 국가들과 협의가 진행중인 만큼,

- EUAID측과는 EU 인도적 지원의 거점인 동 기관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인프라 연구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함

2. 유럽정책연구센터(CEPS, CEnter for Policy Studies)

- (일시/장소) 6.23(월) 16:00~17:00 / 브뤼셀 EU 본부
- (면담자) Steven Blockmans(대외정책부장, 연구교수)
 - * (우리측) 나원창 기재부 남북경제과장, 김경록 남북경제과 사무관, 박진혜 통계청 통계정책과 사무관, 고광희 주벨기에대사관 재경관, 안영기 주벨기에대사관 1등서기관

- 우리측은 북한 민생인프라 기초 실태 조사와 관련한 우리측의 관심 및 그간의 노력을 간략하게 소개하고,
 - CEPS측이 한국 주벨기에대사관과 함께 추진중('14.6~12월)인 'EU NGO의 대북지원 성과 분석 및 향후 과제' 관련 정책 연구용역이 우리측 관심 주제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함
 - 특히, EU NGO가 장기간 대북사업을 추진하며 획득한 기초 자료들이 CEPS의 정책방향 연구와 한국이 추구하는 Fact-finding에 모두 기여할 수 있다고 부연하고,
 - CEPS측의 긍정적 의사가 있을 경우 한국 연구기관 및 EU측 통계 연구기관과 3자 협력을 통해 민생인프라 분야 북한 기초자료 품질 향상을 모색하는 방안을 제안함
- CEPS측은 제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며 3자 협력의 구체적 추진 방식에 대해 질의함
 - 우리측은 동 3자 협력연구 사업의 PM 역할은 한국 연구기관이 담당할 것이며,
 - CEPS는 EUAID.대북사업 수행 EU NGO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DB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지속 수집.

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함

- 이와 함께 우리측은 동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회성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,
 - 이 과정에서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참여 기관 간 보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첨언함
- CEPS측은 한국이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현재 추진중인 정책연구용역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뿐 아니라,
 - 북한 경제 실태 조사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연구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추후 활용 여지도 높을 것이라 언급함
- CEPS측은 현재 추진중인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한 금년 일정이 촉박하므로 향후 한국측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정책연구용역 및 동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조율할 것을 요청함
 - 우리측은 귀국 후 한국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후 보다 진전된 협력 방안을 제시기로 함

3. EU 통계청(EUROSTAT)

- (일시/장소) 6.24(화) 09:30~11:00 / 룩셈부르크 EUROSTAT 부
- (면담자) Maria Joao Santos(A2 국제협력과장), Marie-Paule Scheid-hauer(A2 통계담당관), Marco Ginestro(A3 통계담당관)
 - * (우리측) 나원창 기재부 남북경제과장, 김경록 남북경제과 사무관, 박진혜 통계청 통계정책과 사무관, 정인숙 EUROSTAT Experts (통계청 파견)
 - ** A1 : EU 내 협력, A2 : 역외 선진국 협력, A3 : 역외 개도국 협력
- 우리측은 북한 민생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의 정책적 의미와 북한 통계 정확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, EU 통계청과의 협력 의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함

- 첫 번째 협력 의제로 우리측은 EUROSTAT이 과거 체제전환국의 통계 추계 및 생산과정에서 획득한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양측이 공유하는데 관심이 있으며,
 - 이러한 협력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북한 통계 추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설명함
- EUROSTAT측은 체제전환국에 대한 기술 지원은 EUROSTAT의 대외 협력 분야 주된 업무라며 환영 의사를 표시하고,
 - 알바니아 등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한 통계분야 Capacity Building과 관련하여 EUROSTAT이 충분한 tool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함
 - 또한 추후 화상회의 등을 통해 한국측이 특히 관심있는 개도국의 민생인프라 통계 추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
- EUROSTAT측은 체제전환국 사례공유와 함께 기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도국 통계진단 및 컨설팅 프로그램인 'Snapshot tool'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함
 - Snapshot tool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통계 생산 및 관리과정의 총체적 진단 및 정책적 제언을 수행하는 11일 과정의 컨설팅 프로그램임
 - 컨텐츠는 EUROSTAT이 보유한 진단 Framework에 기반하고 있으며, 실제 사업 집행은 유관 민간기관을 통해 아웃소싱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
 - 특히, 표준 모델 안에는 통계 출처 및 기초자료의 신뢰도와 최종 생산 통계의 품질을 점검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음
 - 2013년 완성된 Snapshot 프로그램은 그간 라오스, 에콰도르, 부르키나파소, 모잠비크 등에서 시험평가를 거침

- 시험 평가시에는 ‘아르테미스’라는 민간 컨설팅 회사(룩셈부르크에 기반을 둔 통계 전문 기관)가 해당국 통계기관 담당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평가 및 정책적 제언을 도출
- EUROSTAT측은 Snapshot tool이 한국측 관심 주제와 연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, 필요할 경우 동 사업의 framework 등에 대한 공유가 가능하다고 함
 - 우리측은 EUROSTAT의 제안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사례 연구를 위해 Snapshot tool과 아르테미스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함
- 우리측은 또다른 협력 의제로서 EU 국제기구 및 NGO에서 그간 추진한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기초자료를 DB화하기 위해 EUROSTAT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함
 - EUROSTAT측은 제안 취지에 대해 공감하며 북한 통계의 취약성에 대해 같은 의식을 공유하고 있으나,
 - 북한 등의 DB구축과 관련한 부분은 EU 통계 취합이 주된 기능인 EUROSTAT의 사업 영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만큼 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EU 본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
- 이에 우리측은 EUROSTAT이 적당한 EU 통계연구기관을 추천하여 주면 한국측 통계연구기관이 해당 EU 연구기관과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함
 - EUROSTAT측은 사업의 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한 좋은 대안이라고 화답하고, 동 의제를 본부 차원에서 논의하겠으며,
 - EU측 통계연구기관 추천 건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추천해 주겠다고 함
- EUROSTAT측은 마지막으로 한국이 북한과 EU가 함께 참여하는 사업을 별도로 구상하고 있는지를 질의함

- 우리측은 통계 정보에 대한 북한의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북한과 직접 협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,
 -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 외부에서 추계하는 북한 경제 기초통계의 품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동 프로젝트의 목적이라고 첨언함

참고2

EU 통계청의 체제전환국 통계 구축 작업

- (목적) 체제전환국의 통계시스템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
 - 국제기구, 개별 국가 등이 원조 제공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, 국가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들을 신속하게 축적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및 데이터 구축 사업 실시
- (내용) 크게 기술 지원과 교육·훈련의 두 가지 방식으로 통계 협력을 수행
 - 기술 지원 프로그램(컨설팅, 정보교환 세미나 등)을 통해 통계시스템의 제도적·법적·조직적 측면, 데이터 수집 측면 등에서 지원
 - 단기 및 중장기 교육·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통계 담당자를 교육

- 단기 과정 : 1~3주 간 여러 국가의 특정그룹 통계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통계 처리 작업 교육에 초점을 두는 프로그램
- 중장기 과정 : 약 3개월 간 지역을 기반으로 실시되며, 공식통계와 관련한 하나의 주제에 대해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

- (대상) EU가 지정학적 특성에 따라 체제전환국을 분류*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는데, EU 통계청 역시 이를 기반으로 통계 협력을 진행

* 폴란드, 헝가리 등 중앙유럽 및 동유럽 국가와 러시아,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국가로 구분(사례검토 참조)

〈 사례검토 〉

【중앙유럽 및 동유럽국가】

□ 기술지원

- (기술정보 세미나) 통계 시스템 개혁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구 통계 시스템의 제도, 조직, 방법론에 관한 정보를 제공
- (테마 지원 프로젝트) 통계정보의 생산 및 배포를 위해 통계 시스템의 각 부문별 발전을 지원

□ 교육·훈련

- EU 통계 훈련코스인 통계전문가 훈련과정(TES : Training of European Statisticians) 참여 기회 제공 및 맞춤형 통계 교육을 실시

□ 통계정보 제공

- OECD와 함께 중앙유럽 및 동유럽 국가의 경제상황에 대해 3개의 공동 프로젝트*를 진행하여,
 - 획득한 통계 데이터의 관리 및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였고,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 통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
- * 해당 국가의 모든 단기 경제지표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 EU 공동체의 시스템 및 OECD 여타 국가들의 시스템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질적 조사도 병행

【구소련국가】

□ 기관형성(Institution Building)*협력

- 통계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목적과 전략 확인, 통계 교육 및 기술 협조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확정하고, 국제사회와의 통계협력 기반 마련

- **최고 관리자를 위한 세미나**를 개최하여 통계 서비스의 개편 과정에서 직면했던 **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방국가의 통계 체계 관련 지식을 제공**

* 주위 국가로부터 지지 및 협조를 받으며 발전해 나갈 수 있는 **공식적 조직을 설립**하거나, 그러한 공식적 조직으로 **개편하는 것**을 의미

기술정보협력

○ EU 통계처가 관심 있는 통계 정보를 해당 국가가 생산 및 보급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기술을 제공하였고, 기술정보 세미나 및 **테마 협조 프로젝트** 실시

통계교육협력

○ 통계 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**인적자원 형성 및 시스템 개발**을 위해 **관리자, 통계전문가, 통계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**

- **일반 교육**(시장 경제의 작동 프로세스의 기본 개념 등), **특정 주제 교육**(통계체계 각 분야), **교육방법론 교육** 등 세 종류의 교육 과정으로 분류되어 제공

참고3

북한의 경제성장을 추정(한국은행)

◇ 북한 경제성장률은 북한경제 관련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기초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후 국내 전문가들의 검증과정을 거쳐서 확정

- (개요) '91년 이후 매년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「북한 경제성장률」을 추정
 - 동 작업은 북한의 경제력을 우리의 경제시각에서 비교.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북정책에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
- (추정방법)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추계방법인 UN의 국민계정 체계*(SNA; System of National Accounts)를 적용
 - * 기존의 산업연관표, 국제수지표 등 별개로 파악하고 있던 국민계정 관련통계를 통합, 각종 거래형태 및 거래주체를 경제활동의 동질성에 따라 나누어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,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 뿐만 아니라 러시아, 중국 등 체제전환국들도 동 체계에 따라 국민소득통계를 편제
 - 명목통계(산업구조, 1인당 GNI 등)는 북한 가격자료 등 기초자료의 입수가 곤란하여 우리나라의 가격,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
- (추정치 활용) 북한경제의 개괄적인 생산활동 동향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파악하는 데 있어 국내외적으로 널리 활용
 - 북한경제를 우리나라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경제력 비교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 경제통합에 대비한 소요비용을 산출하는 데도 유용

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

(단위 : %)

'90	'95	'00	'01	'02	'03	'04	'05	'06	'07	'08	'09	'10	'11	'12
-4.3	4.4	0.4	3.8	1.2	1.8	2.1	3.8	-1.0	-1.2	3.1	0.9	-0.5	0.8	1.3
(9.3)	(3.9)	(3.8)	(1.0)	(.2)	(.8)	(.6)	(1.0)	(.2)	(.1)	(.3)	(.3)	(6.3)	(3.7)	(2.0)

주 : ()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

참고4

동·서독 통계 통합 사례 연구

□ 구동독에 대한 새로운 통계체제 도입 과정

일자	주요 내용
1989.12.	- 동·서독 통계청장 협의
~1990.3.	- “독일통계” 실무팀 창설
~1990.7.	- 1차 국가조약(화폐, 경제, 사회통합에 관한 협약)을 체결했을 때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동의 경제, 동화정책을 위한 비교성 있는 결정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노동시장, 물가, 생산, 매출액, 대외무역, 소매업 등의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동서독 간 비교 가능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기로 합의 - 가장 중요했던 가격통계는 1990.5월에 동서독 간 가격체제를 비교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마련 - 1990년 6-7월에 동독에서 최초로 소비자물가지료가 작성
~1990.10.	- 통일 조약이 발효됨과 더불어 모든 연방통계법이 구동독 지역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게 되어 완전 비교성 있는 통계조사가 도입 - 유엔의 국민계정체계(SNA)에 따른 국민계정을 작성하기 위해 신연방주에 한해 모든 경제 분야의 비용구조, 기업의 설비투자, 가계예산 등의 특별통계조사를 실시 - 이와 함께 노동력, 수입, 노동시간, 취업자 수 등도 조사
1991.1~	신연방주의 모든 통계를 독일연방의 통계제도에 의거해 실시

□ 자료 확보 및 문서화

○ 동독 통계청은 연방통계청에 다수 통계자료를 인계

- 자료 폐기 및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동독의 각 관할 부처와 기관들이 독자적으로 실시했던 전문적인 보고 자료*들은 모두 인계

* 보건 및 사회복지 통계, 문화, 교육 및 사법관련 통계 그리고 국가재정 및 국제수지 영역의 통계자료

- 1975년부터의 구동독 통계자료가 기술적으로 수집·보존되어 판독가능하게 되었으며, 상세하게 문서화

□ 역추정

- 동·서독 간 통계자료의 직접 비교를 위해 구동독 통계자료를 연방통계 체제로 전환 및 행정구역 개편에 맞추어 환산
 - 국민계정체계(SNA)을 활용한 구동독 국내총생산 및 IMF 국제수지표에 따른 구동독 국제수지에 관한 통계자료가 조사되었고, 신 연방주들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산출

〈 역추정 사례검토 〉

【SNA를 활용한 국내총생산 역추정】

- 독일경제연구소(DIW)는 서독과 전적으로 다른 경제시스템에 따라 산출된 동독의 국내총생산을 SNA를 통해 서독과 비교 가능하도록 변환
- 동독의 가격체계와 조세체계 상의 왜곡을 제거하고 서비스부문 추정치 변환하여 산출한 1989년 구동독의 국내총생산은 약 2,850억 서독마르크(동독 마르크로 계산한 국민총생산의 약 84%)로 나타남
 - 산출과정에서 이전까지 국가에 속했던 정당과 노조를 사적 가계로 분류해야 하는 등 정부, 기업 및 가계 부문을 명확하게 구분하는데 따른 문제 발생

【IMF 국제수지표에 따른 국제수지 역추정】

- 구동독 대외경제관계의 전체적인 조망을 위해 IMF의 국제수지표에 따른 국제수지로 전환하여 종합적으로 완결된 대차대조표를 작성
 - * 이전까지 구동독은 유동성과 채무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현금대차표를 통해 외국과의 채권 및 채무관계 실태 등을 산출
- 구동독과 사회주의 국가 및 비사회주의 국가들 간 교역에 대한 평가와 전체총액을 산출

참고5

한-EU 통계청 간 협력 사례

구분	일시(장소)	추진배경	주요 내용
<p>제11차 한-EU 공동위원회 참가</p>	<p>'13. 9. 13. (서울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교부의 북미유럽 연합경제외교과에서 제11차 한-EU 공동위원회 의 안건요청 및 참가요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-Eurostat 간 통계심층보고서 공동발간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과 Eurostat는 제10차 한-EU 공동위원회('12.10)에서 통계심층보고서 공동발간에 대하여 합의(기업생멸통계를 주제로 정함) - 자료 산출 방식과 분석내용을 Eurostat와 심층 토의하기 위하여 통계청 전문가(2명)가 '13. 9월초 Eurostat를 방문 ○ 한-Eurostat 인적교류 활성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2년 체결한 「인적교류를 위한 MOU」에 근거하여 한국 통계청 직원의 Eurostat 파견을 추진
<p>2013 한-Eurostat 공조 통계역량강화 연수</p>	<p>'13. 11. 25. ~ 11. 28. (대전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0년 EU통계처와 통계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유럽의 선진통계기술을 아태 지역에 전파할 수 있는 토대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아태 지역에 선진 국가통계 시스템 운영 경험과 기법을 전수하여 참가국의 통계역량 강화도모 - ESS(European Statistical System)내에서의 통계품질관리 및 기업생멸통계 경험 공유
<p>한국-EU 국가간 기업생멸현황 비교분석</p>	<p>'14. 2. 27. (보도자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0년 EU통계처와 통계협력 MOU를 체결한 이후 국제통계 발전방안을 위하여 세미나 개최, 통계 비교분석 등 공동 사업을 활발히 진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EU통계처와 공동으로 기업생멸 통계에 대한 한-EU간 비교분석(Statistics in Focus)을 실시 - 2010년 기준 기업생멸통계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26개 EU 회원국(독일, 스페인, 프랑스 등)을 비교분석